

### 집 앞 녹지조성부터 정원산업 육성까지

# 천만그루 정원도시 밑그림 그리기

전주시, 종합계획 수립용역 착수보고회

내년 6월까지 녹지 확충 등 청사진 마련

전주시의 천만그루 정원도시 프로젝트의 비전과 실행전략을 담은 밑그림 그리기가 착수됐다.

시는 29일 전주시청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최현현 총괄조정과, 박성례 (사)푸른전주운동본부 사무국장, 최현규 천만그루정원도시추진위원회 운영위원장 등 녹지 관련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천만그루 정원도시 종합계획 수립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천만그루 정원도시 프로젝트는 김승수 전주시장의 민선7기 첫 결재사업으로 열성현상과 미세먼지가 심각

한 전주를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 생물의 다양성이 복원돼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회복력 있는 도시로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시는 (사)한국정원디자인학회와 함께 내년 6월까지 추진하는 이번 용역을 통해 △천만그루 나무심기 정책의 실행을 위한 '그린 인프라 구축' △21세기 전주의 새로운 문화 및 환경 자산 구축을 위한 '정원문화도시' 조성전략 △전주시 '정원산업 개발 및 육성방안'을 위한 전략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먼저 그린 인프라 구축의 경우, 시

는 지역 녹지·정원 관련 전문가와 시민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지역현황 조사를 실시하고 나무를 심을 수 있는 용지에 대한 분석을 통해 △생각할 만한 그린 인프라 △도로 및 보행로 등을 활용한 그린 인프라 등 다양한 형태의 유형별 실행전략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한 정원문화도시 조성전략의 경우, 시는 '정원도시'의 개념과 비전 정립을 통해 전주민의 정원도시를 설정하고, 이에 맞는 정원의 형태와 정원화 전략을 수립키로 했다. 또, 시민들의 정원문화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정원문화의 활용·확산을 위한 방안을 개발하게 된다.

시는 정원산업의 유형과 실패를

분석함으로써 천만그루 정원도시 프로젝트가 단순히 나무를 심어 가꾸는 일에 그치지 않고 정원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정원산업도시 육성 모델을 개발함으로써 일자리와 관광, 정원소재의 유통·생산까지 이어지는 전주시 정원산업 개발 및 육성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천만그루 정원 도시는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고, 지속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며, "정원 도시로 가는 방향을 잘 설정해서 모든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보다 높은 삶의 질을 누리고 전주가 가장 생태적인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송효철 기자



전북지방경찰청은 29일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에서 사회적약자 보호를 위한 경찰과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성치안 대 토론회'를 진행했다.

## 사회적 약자 보호 머리 맞대

전북경찰청, '정성치안 대 토론회' 진행

전북지방경찰청(청장 조용식)은 29일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에서 사회적약자 보호를 위한 경찰과 유관기관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성치안 대 토론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토론회에서는 전북경찰의 사회적약자 보호를 위한 '정성치안 추진 계획'을 설명하고 피해자 원스톱지원을 위한 방안의 역할을 강조했다. 또한, 그간 전북경찰이 추진한 '사회적약자 보호 정책추진단'의 주요 추진사항 등을 참석한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공유했다.

이날, 토론회 여성단체 관계자는 전북경찰이 사회적약자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고 있는 것에 안심이 되며 여성, 아동, 노인, 장애인에 대한 범죄예방과 피해자 보호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더불어, 장애인 보호시설 대표로 참석한 한 관계자는 장애인 성폭력 실태를 설명하며 "경찰이 장애인 특

성을 먼저 이해하고 공감하는 자세를 가져달라"고 말했다.

조용식 청장은 각 기관 관계자들의 요구사항을 청취하고 "여러 기관의 애로사항과 불안사항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경찰이 더욱 노력하겠다"며, "우리 사회에서 범죄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여성, 아동, 노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경찰이 가장 먼저 배려하고 가까이 가는 정성치안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사회적약자 보호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약자들의 입장이 반영된 체감도 높은 정책 마련이 필요하며, 경찰과 유관기관 간 협업을 통한 공동체적 유지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전북경찰은 지난 22일 사회적약자 보호 정책추진단 출범을 시작으로 여성,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약자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각 기능간 다양한 시책을 발굴, 시행하고 있다.

/김영태 기자

## “노후화로 불안 한빛핵발전소

### 1·3·4호기 당장 폐쇄하라

호남권 공동행동 '한수원·원안위 무책임한 태도 규탄'

전남 영광의 한빛핵발전소에서 초대형 공극이 발생해 호남지역주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

한빛핵발전소 대응 호남권 공동행동은 29일 영광 한빛핵발전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에 발견된 157cm·331cm·97cm 충격적인 초대형 공극을 포함, 이곳 핵발전 시설에서 총 191개의 공극이 발견되었다"며, "한수원과 건설사인 현대, 제대로 된 관리감독과 규제를 하지 못한 원안위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호남권 공동행동에 따르면, 한빛 1호기는 지난 5월 원자로 출력 계산 오류와 무자격자 정비원의 제어봉 조작 등으로 원자로 출력 급증 사고가 발생해 수동정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난해 11월 한빛 3호기 격납건물 내

전기콘센트 화재 사고, 올해 7월 11일 방사성폐기물 처리장 건조기내 화재사고가 발생했다.

또한, 한빛 4호기 증기발생기에서 망치가 발견되고 격납건물 철관이 부식되는 등 부실공사, 결함 등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다.

이들은 "사태가 이리함에도 여전히 안전에 이상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는 한수원과 원안위의 안일하고 무책임한 태도를 규탄한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노후화되고 부실 덩어리인 한빛 1, 3, 4호기를 폐쇄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영광 한빛핵발전소는 가동이 중단된 상태로 정부는 이를 개보수해 재가동할 방침에 있다.

/송효철 기자



새콤달콤한 여름사과 '잘 익었네'

29일 전주시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관 전시포장에서 신품종 전시를 위해 식재한 조생종 사과인 썸머킹을 어린이들이 수확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썸머킹'은 국산 여름 사과로서 과즙이 풍부하며 당도와 신도가 높아 맛이 새콤달콤하다.

29일 전주시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관 전시포장에서 신품종 전시를 위해 식재한 조생종 사과인 썸머킹을 어린이들이 수확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썸머킹'은 국산 여름 사과로서 과즙이 풍부하며 당도와 신도가 높아 맛이 새콤달콤하다. (사진=농촌진흥청 제공)

### 전주 송천동 조립식 건물 화재 발생... 1시간30여분만에 진화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메가월드 옆 조립식 건물에서 불이 나 1시간30여분 만에 진화됐다.

29일 전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17분께 "상가에서 시꺼먼 연기가 치솟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당국은 대응 2단계에 발령하고 살수차 등 장비 2대를 동원해 불길을 잡았다. 소방 대응 1단계는 관찰

내 소방서만, 소방 대응 2단계는 불이 번질 우려가 커 전북 관내 소방서가 모두 출동한다.

이 불로 상인 A(54·여)씨가 왼쪽 팔과 얼굴에 1도 화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또 상가 2개 동 면적 1200여㎡가 불에 탄다. 1억5000여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강석훈 기자

### 금암1동 주민자치협의회

일본제품 불매운동 펼쳐

전주시 금암1동 주민자치협의회(위원장 조선자)는 유통인구가 많은 주요 교차로에 '보이콧 재팬' 플래카드를 게시하며 일본제품 불매운동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최근 일본의 한국에 대한 근거 없는 수출규제와 진정한 과거사 반성을 보이지 않는 아베정부의 태도에 시민들을 중심으로 자발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일본제품 불매운동에 금암1동 주민자치협의회 회원들도 적극 동참하기로 뜻을 모았다.

자치협의회는 일본제품 불매운동이 각계각층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보이콧 재팬-일본제품 불매운동에 동참합시다'라는 구호를 내세워 캠페인을 벌이며 시민들의 동참을 호소하고 있다.

조선자 금암1동 주민자치위원장은 "일본 아베정부의 과거사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와 일본의 경제보복이 철회될 때까지 금암1동 주민자치협의회는 일본제품 불매운동을 계속 진행할 것이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통해 이번 기회로 우리나라의 경제주권을 지켜내자"고 밝혔다. /송효철 기자

## 전주시내버스 노선, 시민들의 손으로

지속가능발전협, '해피버스' 프로젝트... 디자이너 650명 내달 16일까지 모집

전주시민들을 대상으로 시내버스 노선 디자이너를 모집한다.

전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상임대표 오창환)는 '시민, 행정, 전문가가 함께 만드는 전주 해피버스'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프로젝트는 시민들과 함께하는 버스노선 디자인을 통해 실제 이용하기 편한 버스노선으로 개편함으로써 대중교통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버스 이용률을 증가시켜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된다.

전주시설공단, '고운 아이사진 이벤트' 개최

전주시설공단이 화산체육공원 이용객을 대상으로 '고운 아이사진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벤트는 화산체육공원 내 화산체육관과 빙상경기장, 시민행복뜰을 홍보하는 한편 시설에 대한 이용객의 친밀도를 높이기 위해 진행한다.

이를 위해 전주시속협은 우선 시민과 함께 만드는 전주 버스노선 개편안을 함께 만들어갈 '버스 노선 시민 디자이너' 650명을 오는 8월 16일까지 모집할 계획이다.

디자이너로 선정된 시민들은 오는 24일 오후 1시 전주시내체육관에서 열리는 1차 원탁회의(디자인 워크숍)을 통해 버스노선 개편의 원칙을 정하고 이후 2차 원탁회의를 통해 합리적인 버스 노선 개선안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전주시속협은 실제 시민들이 원하

는 노선개편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향후 시민들과 함께 수립한 버스 노선 개편안을 전주시에 제출하고, 꾸준히 협의해나갈 방침이다.

이벤트 버스 노선 시민디자이너에는 버스 노선 개편에 참여하길 원하는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이메일(jhappibus@naver.com) 또는 온라인 구글 폼(https://forms.gle/pA9Ugyf5xroKNS7), 전주 해피버스 프로젝트 기획팀(010-5034-5104)으로 전화 접수하면 된다.

/송효철 기자

음달 23일까지 이메일(epik0422@hanmail.net)로 사진을 보내면 된다.

전성환 이사장은 "여름방학을 맞아 화산체육공원 내 시설장을 찾는 가족 단위 이용객을 위해 이벤트를 마련했다"며, "우리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이번 이벤트를 통해 소소한 추억을 쌓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 전북대병원, 고객만족 혁신활동 강화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조남천)이 내, 외부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해 CS(고객만족) 혁신활동을 강화하고 나

고 있다. 전북대병원에 따르면 환자중심의 병원문화를 만들어가고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고객인권지원실을 중심으로 CS혁신팀 운영, CS교육, 고객과의 대화 등을 통한 CS혁신활동을 진행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CS혁신팀 운영은 9명으로 구성된 서포터즈들의 활동을 통해 병원 현장을 관찰하고 직원 및 환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얻어낸 아이디어를 반영해 개선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올 상반기에 활동한 혁신팀에서는 고객들이 진료과와 검사부서를 찾기 어렵다는 의견을 반영해 연결통로 중앙 바닥에 안내판을 부착하는 등 환자경험을 통한 개선활동으로 큰 공감을 얻고 있다.

CS교육은 직원들의 자기개발 능력을 강화하고 서비스마인드를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신입직원은 물론 재직직원을 대상으로 사이버 교육 및 특강, 찾아가는 강의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교육신청 희망자나 부서 등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CS 교육에서는 기본예절 및 응대방법과 환자경험에 대한 이해, 감정코칭과 스트레스 관리 등 다양한 내용을 프로그램을 통해 직원들의 서비스마인드를 향상시키고 있다.

내·외부 고객과의 의사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고객과의 대화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직원 및 직원가족으로서 병원의 의료서비스를 경험했던 사례를 경청하고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고객 초청 간담회'를 진행했다.

지난 3월에 열린 고객초청간담회에서는 분과 2층 수술실 보호자 대기실 의의자가 마주보고 배치되어 불편하다는 의견을 적극 수용해 의자의 방향을 일원화하는 등 고객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고객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다.

/김영태 기자

## 전주 문화재 안내판 '알기 쉽게'

시, 올 연말까지 12곳 외관·문안 정비 추진

경기전 정전과 풍남문, 전동성당 등 전주지역 주요 문화재의 안내판이 정비된다.

전주시는 문화재청, 전북도와 함께 올 연말까지 경기전 정전과 전동성당 등 12개 주요 문화재 안내판의 외관과 문안을 정비하는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을 전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사업은 그간 전문용어와 한자로 쓰여 이해하기 어려웠던 문화재 안내판을 국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민이 직접 참여해 문안을 작성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관리해나가는 것이 핵심이다.

올해 사업 대상은 이들 3개 주요문화재 외에도 △전주 다가동 구 중국인포목상점 △전주 신흥고등학교 강당과 본관 포치 △삼경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희안대군묘 △전라감영지 △오목대이목대 △천주교순교자묘 △희안당 △극락암목조여래좌상 등 국가지정문

문화재와 도지정문화재들이다. 시는 오는 9월까지 안내문안 작성과 검수를 마치고, 11월까지는 새로운 안내판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이후 시는 사업 효과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 후 사업대상을 전주지역 모든 문화재 안내판으로 확대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송효철 기자

상반기 퇴직통장에 공로패 수여

전주시가 시정발전에 기여해온 퇴직 통장들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시는 29일 '2019년 상반기 임기만료 퇴직통장 공로패 수여식'을 개최하고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임기가 만료돼 퇴직한 151명의 통장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송효철 기자